

송영길 ‘허위 성매매’ 언급 영상금지 가처분… ‘이미 삭제’ 기각

송영길 “허위사실·모욕적”...영상 가처분 신청 법원 “허위사실 인정...이미 영상 삭제돼” 기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성매매 허위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영상이 이미 삭제됐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7일 송 대표가 가세연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송 대표는 가세연이 지난해 12월 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의 적시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영상들을 게시했다며 지난달 11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가세연 영상 속엔 송 대표가 해외

출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로부터 해당 의혹을 추궁받았으나 민주당은 해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고 이후 대법원은 송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허위사실로 확정했다.

가처분 재판부도 해당 영상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고 보면서도 이미 해당 영상이 채널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게시를 금지하는 것은 사전억제에 해당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들(가세연)이 게시한 이 사건 영상은 상당 부분 채권자(송 대표)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모욕적 비방을 내용으로 하

고 있다”며 “향후 영상이 게재되거나 배포될 경우 그로 인해 채권자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래에 생길 명예권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으로서 게시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행위의 공개 자체를 금지하는 사전억제에 해당한다”며 “채무자의 반복적인 침해행위가 명백히 예상되고 표현행위를 금지할 응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영상이 게시된 시기로부터 2달 이상이 경과한 현재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들이 다른 방송 매체를 통해 게재 내지 배포하는 등 행위를 했거나 그런 시도를 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가처분으로써 이를 긴급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남진기자



200m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검사 대기 줄

를 기다리고 있다.

부산에서 사상 처음으로 하루 3만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된 9일 부산진구 송상현 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는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채 차례

담양 천변, 승용차서 일가족 3명 사상

두 딸 숨진 채 발견...어머니도 생명 위독

담양의 한 천변에 세워진 차량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전남 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담양군 담양읍 한 천변에 세워진 차량에서 A(17)양과 언니 B(25-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차 안에서 발견된 자매의 어머니 C(45-여)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경찰은 '거액의 투자금

사기를 당한 C씨가 딸들을 데리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 이들을 찾아냈다.

경찰은 일가족 신체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과 부검 등을 의뢰,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담양-박종영기자

전라북도 장수군 변암면, 한 야산서 화재

2시간20여분 만에 진화

전북 장수에서 발생한 산불이 3시간여 만에 진화했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3분께 장수군 변암면 동화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 20여분 만에 진화했다.

불이 나자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대원 151명과 산불 진화차 14대 등을 투입해 불길을 잡았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에서 발생해 초반 화세

가 강했지만, 산불특수진화대원의 신속한 출동으로 조기에 주불을 잡았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산림 당국은 전했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불씨가 살아나지 않도록 현장에 진화대원을 대기 시켜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하고,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불 발생 원인 및 피해 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정밀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부부싸움하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순찰차 파손 70대 ‘집행유예’

부부싸움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까지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용물 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3시26분께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계양경찰서 소속 순경 B씨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날 오전 3시50분께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B순경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다가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후미등을 부순 혐의로 받고 있다.

그는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받고 자 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선욱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